

✠ 예 배 시 간 안 내 ✠

[현금계좌 : 신한은행 301-01-916707 안동교회]

* 보내는분은 필히 성명+헌금종류를 표기해주세요

예) 홍길동주정, 홍길동감사, 홍길동십일조, 홍길동해외선교...

<십일조헌금>

김기복 김기훈 김옥실 김창희 민동호 박영석 배호근 백병기 서우석 유현일
윤순미 이무남 이 성 정세학 정찬욱 조명자 채병원 한혜영 황경선 황정희

<주정헌금>

강기석 강승희 고영수 곽흥섭 김경아 김길성 김대영 김세운 김영이 김영희B
김유선B 김재준 김정단 김정호 김종만 김중순 김주미 김해숙 김혜자B
김화자 김희수 남윤우 남택권 노기방 노찬희 마명규 문윤희 민동호 방 인
손선경 양은선 오순원 원명자 유양재 유옥근 유양재 유준자 유혜정 유화영
윤주일 윤해원 이광섭 이선자 이 성 이연화 이영수 이영은 이재영C 이정숙
이준호 이진숙 임동희 임채호 임현우 전병권 정미란 정봉순 정주원A 정학재
정혜숙 제갈현선 조민숙 조영희 조정애 차은미 최경일 최아름 최예순 최용진
최재왕 최종걸 한미경 허동각 홍동근 황영태 황옥희

<주일헌금>

강영준 김기복 박진령 방예은 백종관 변경인 이광배 이선옥 최은진 최호정
홍정현 무명6

<감사헌금>

고헬렌혜순 김기복 김길성(범사) 김정단(생일) 박상현B 배호근 이승배
이영순(지켜주심) 이지훈 이효중(생일) 임채호 전영주 정정아 조민숙
조정애(범사) 황중환 무명(가정에 함께하심)

<목적헌금> (교육국지원) 김정호

<선교헌금>

(북방) 김정단 무명1
(해외) 김기복 김정단

*6월 안동교회 중보기도

- 6월에는 겸손하게 하소서. 타인을 귀히 여기고 존대하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리게 하소서.
- 임직을 통해 세우신 항존직분자들을 주님의 손에 붙드소서. 무엇보다 말씀 안에 뿌리내리고, 기도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며, 맡겨진 직분을 주께서 부르신 소명으로 기쁘게 감당하게 하소서.
-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과 분쟁의 땅에서 수많은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여, 증오와 보복의 사슬을 끊으시고 이 전쟁을 속히 멈추어 주소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께서 그 땅에 당신의 평화를 이루소서.

| 예 배 | 시 간 | 장 소 | 담당교역자 | |
|------------|-----------|--------|--------|-----|
| 주일예배 | 영아유치부 | 오전 11시 | 영아유치부실 | 김은주 |
| | 아동부 | 오전 11시 | 아동부실 | 최다성 |
| | 중고등부 | 오전 11시 | 중고등부실 | 장희찬 |
| | 1부 | 오전 9시 | 예배당 | 황영태 |
| | 2부 | 오전 11시 | 예배당 | 황영태 |
| 3부(청년) | 오후 1시 30분 | 예배당 | 김태진 | |
| 수요기도회 | 오후 7시 | 예배당 | 황영태 | |
| 새벽기도회(월-토) | 오전 5시 30분 | 예배당 | 황영태 | |

| | | | |
|-------|-------------|----------|-----|
| 원로목사 | 유경재 | 2부찬양대지휘 | 김성미 |
| 담임목사 | 황영태 | 1부오르가니스트 | 민동림 |
| 부목사 | 김경아 마명규 | 2부오르가니스트 | 김연주 |
| 파송선교사 | 엘지자르갈(몽골) | 간사 | 임동희 |
| 협력선교사 | 이영철 오영환 | 관리 | 김기복 |
| 전도사 | 김태진 | 어린이집원장 | 김은주 |
| 교육전도사 | 김은주 장희찬 최다성 | | |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7:20)



2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제4044호

2026. 6. 7.

안동교회 1909년 3월 첫주일창립 성령강림절 후 둘째주일

2026년도 주제 :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II
창조세계 보전의 해

“가면을 벗은 영혼의 계절”

마태복음 7:16-20

세상은 우리에게 '훌륭해 보이는 인격의 가면'을 쓰고 끊임없이 매력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신앙생활조차 내 의지력을 쥐어짜서 억지로 성품을 흉내 내는 '행동 수정'으로 흐르면, 결국 위선과 영적 번아웃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죽은 사과나무에 플라스틱 사과를 매달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성품의 변화는 나뭇가지를 바꾸는 노력이 아니라,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인 나를 온전히 접붙이는 연합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형으로서 사랑부터 절제까지 아홉 가지 성품이 동시에, 균형 있게, 그리고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납니다. 내 힘으로 선한 사람이 되려는 종교적 강박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심자가 사랑의 수액을 날마다 들이마시며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빚어가시는 예수의 성품을 누리십시오.

소그룹 나눔 질문

1. [플라스틱 사과] 내 삶 속에서 스스로 '좋은 신앙인' 혹은 '성숙한 어른' 처럼 보이기 위해 내면의 상처나 분노를 억누르고 억지로 걸어두었던 '가짜 성품(플라스틱 사과)'은 무엇입니까?
2. [복음 적용] “가지가 열매를 맺으로 공공 앓는 대신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열매가 맺힌다”는 영적 원리가 행동 수정에 지쳐있던 당신의 마음에 어떤 자유를 줍니까? 이번 주간,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의 심자가 사랑에 더 깊이 달라붙어 있기(able) 위해 내가 실천할 골방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서울시 종로구 윤보선길 57 (안국동)
57, Yunboseon-gil, Jongno-gu, Seoul, Korea
TEL. (02) 733-3395 FAX. (02) 733-3398
E-mail. office@andong-ch.org http://www.andong-ch.org

